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위 '능장' 회의

민주화사업회 서울에 건립 추진하자 2년만에 열기로

3곳 분산 건립 합의이행 촉구 등 대응방안 논의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위원회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광주를 포함해 서울과 마산 등 3곳에 분산 건립하기로 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이 최근 서울에만 짓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모이기로 한 것이어서 ‘능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2013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회의

소집이다.

사업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애초 합의를 깨고 전당을 서울에만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 등 2명의 전체 위원 중 10여명이 참여한 소위원회 형식의 회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합의이행 촉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도 몇 년간 미온적 태도를 보인 시를 두고 ‘뒷북 행정’ ‘능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마산·광주 추진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유력한 건립 후보지였던 서울, 이명박 정부가 당시 공약했던 광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마산이 경쟁을 접고 각 지역에 분산해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서울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광주와 창원(마산)이 유치 경쟁을 펼쳤고, 두 도시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해

이처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기념사업회는 합의내용과 달리 서울에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이전한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000여㎡와 인접한 부지 등 모두 19만7000여㎡에 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수호스텔 등이 들어서는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가운데 4만㎡에 300억원을 들여 전당을 세울 계획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흥행·매출 ‘두 토끼’ 잡다

73만명 방문 목표 초과... 구매약정·판매 1728억

지난달 15일부터 나주시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 2015국제농업박람회가 1일 폐막식을 갖고 18일간 일정을 마쳤다.

관람객 73만명, 구매약정과 현장판매 1728억원의 성과를 거둬 콘텐츠와 비즈니스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은 행사 관계자, 자원봉사자, 관람객 등 약 300여 명이 모여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하이라이트 영상, 조직위 부위원장인 최경주 전남도농업기술원장 폐회사, 폐막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73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목표치인 70만명을 돌파했다. 보

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 교육, 학습, 힐링 등이 가능한 농업의 다양성과 미래가능성을 제시해 전 세대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직위의 분석이다.

또 28개국 489개 기업·기관과 국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농산물 구매약정 및 현장판매로 1728억원, 박람회 직접수입으로 20억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매상담과 현장 판매를 통한 농산물 구매약정 목표치는 900억원 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aT, 중소기업유통센터, GS리테일 등 참여기관과 기업들은 차기 박람회 확대 참여 의향을 내비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호남최대 도서관 짓자”

부지 활용방안 집담회서

오승용 전남대 교수 주장

광주시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을 추진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호남 최대 도서관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대 5·18 연구소 오승용 연구교수는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사회마을 홍보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주최로 열린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교도소 자리에는 반드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소개하며 “소프트 파워는 아이디어와 의제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 핵심

은 인재 발굴·양성”이라고 말했다.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반영된 김대중 대학원 대학 설립 외에 시립도서관 이전·신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981년 지어진 무등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시설로 바꾸고 교도소 부지에 호남 최대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신축해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광주 발전 전략과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가치만 추구하기보다 균형 감각을 갖고 자원을 배분해 지역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100미터 모꼬지-열정의 백미’ 행사

디오 ‘무빙’이 주최·주관한 ‘100미터 모꼬지-열정의 백미’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이 플라멩코와 거리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호박등, 호박 모양 상품 등이 선보였다.

지난 3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길에서 열린 스튜디오 ‘무빙’이 주최·주관한 ‘100미터 모꼬지-열정의 백미’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이 플라멩코와 거리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호박등, 호박 모양 상품 등이 선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불모지 중등 수출 물꼬 트다

13개 중기 시장개척단

1900만달러 수출MOU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동 3개국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19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31일 지역 13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이란 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벌였다. 업체들은 현지에서 1974만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고 524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했다.

이번 시장개척 활동은 그동안 수출 불모지로 꼽혔던 중등 수출의 물꼬를 트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발·두발 관리 크림 등을 생산하는 화이미제약은 13개 사와 600만달러 규모 MOU를 체결하고, 리야드에서는

UAE·카타르·쿠웨이트에 200여개 매출을 보유한 알마디나 그룹과 샘플 계약도 했다.

이동식 소형 X-레이 기계를 생산하는 에이치디티는 테헤란에서 산업용 기계를 연간 최소 500대(대당 200만원)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미립자 분무소독기 제조사인 에스엠플러스는 메르스·엔지병 방역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리야드에서 수출계약을 했으며, LED 경관조명 업체 휴먼라이텍은 두바이에 직원을 상주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중동시장 문을 두드린 라피네이, 전진티티에스, 아이비티, 대경보스텍 등도 원료판매,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인증대행 협약 등 성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싱가포르, 호주에 10개사가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상생 노사관계 구축·공예산업 육성 조례 제정

광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공예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는 1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총연합 단계 노동조합의 광주지역본부와 산업별 연합 단체, 산업별 단위조합, 노사 관련이나 외국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기관·단체 등이다.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 교육사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사업,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이 지원 대상사업이다.

시는 또 최근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과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광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자문할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창업·상품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공예명장 예우 등을 위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은 오는 3일 개최하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백원광주안과 의원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백원광주안과**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